나의 몸이 깨달음을 얻어 산 부처가 될 때, 조상의 영혼도 함께 부처가 됩니다

私の身體が悟りを得て生きた佛になる時, 先祖の霊も共に佛と化します

와타시노 미테에가 사토리오 에테 이키타부츠니 나루 토키 센조노 레에모 토모니 부츠토 카시마스

心かけどうりに血が變化する
마음먹은 대로 피가 변해

聖書には「生命が靈である.」(ヨハネ 1章1~4)と書かれています. また,「血がまさに生命である.」(レビ 17:11)「生命である血のままでその肉を食べてはならない」(創9:4)と書かれているように血がまさに生命なのです. 血が肉と體になるので, 身體が死ねば生命が死ぬことです. 靈魂=生命=心=血=身體になります. 성경에는 "생명이 하나님 곧 영이다(요한복음 1장 1~4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피가 곧 생명이다(레위기 17:11)" "생명이 되는 피째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라(창세기 9:4)"고 쓰여 있듯이 피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피가 살과 몸이 되므로, 몸이 죽으면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영혼=생명=마음=피=몸이 됩니다.

血の作用が即ち心ということは, 血液型のA型の人は性格が廓帳面, B型の人は社交的で, O型の人は强情で過激な性格を持っているといわれている事から見分ける事が出來ます. 피의 작용이 곧 마음 작용이라는 것은, 혈액형 A형인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B형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O형인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狐のような顔つきの人は狐のような仕業をし, 虎のような顔つきの人は虎のような仕業をします. このように心がまえによって血が變わって顔つきも變わります. よく怒ったり心配を多くすれば顔にシミが出來, 顔つきも變わります. 惡魔の心を抱けば惡魔の顔になり, 神の心を抱けば神になるのです. 여우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여우 같은 짓을 하고, 호랑이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호랑이 같은 짓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하고 얼굴도 변합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걱정을 많이 하면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생김새도 변합니다. 악마의 마음을 품으면 악마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死んだ人の靈魂は子孫の中にいます
죽은 사람의 영혼은 자손 속에 있어

身體は即ち生命であり靈魂であるから, 一人の人間が死ぬ時, その身體は死ぬが靈魂はその人の子孫の中にもあるので, その子孫の中でその人の靈魂は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死んだ先祖たちの靈魂がまさに生きている子孫の中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即ち, 死んだ者の來世がまさに生きている人の現世なのです. 육신은 곧 생명이며 영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그 사람의 자손 중에도 있기 때문에, 그 자손 중에서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바로 살아있는 자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죽은 자의 내세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현세입니다.

靈魂が別の處に行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子孫の中に死んだ者の靈魂が全て入っています. だから, 子孫が立派になれば先祖も立派になるのです. 子孫がよく食べると先祖がよく食べ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死んだ先祖の祭祀を別に行なう必要がなく, 子孫がよく食べればよいということです. 영혼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 속에 죽은 자의 영혼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이 훌륭해지면 조상도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자손이 잘 먹으면 조상이 잘 먹는다는 것이 됩니다. 죽은 조상의 제사를 따로 지내지 않아도 되고, 자손이 잘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イエスが生きている人びとに"白く塗った墓のような人たちよ"と話したのは, 生きている人の中に死んだ人たちの靈がうようよしているので墓だと言ったのです.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라고 말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죽은 사람들의 영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わたし"が考えていることは, 實際は死んだ人たち, 即ち魔鬼が考えていると言うことが出來ます. そして, その魔鬼たちが率いたとおりに動く場合が多いのです. だから, 人が罪を脫いで義人になれば死んだ先祖たちもすべて救われるのです. 私の血の中に先祖たちの靈があるので私が神になれば先祖たちも全て神になります. 佛典にもこのような句節があります.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 즉 마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벗고 의인이 되면 죽은 조상들도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핏속에 조상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신이 되면 조상들도 모두 하나님의 신이 됩니다. 불경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もともとの心を取りもどしてこの自分が佛樣になれば先祖も自然にそのようになるので, 生きている人も, 死んだ人も全てが佛國土に入ることを. . . 」と. だから, 自分が罪をなくし輪廻の車輪の中から拔け出したとしたら, 死んだ先祖も全て佛樣になるから, これこそ最大親孝行になります. 皆さんが勝利祭壇に出で, 生き彌勒佛, 正道令, 救い主である私に會うことが出來るのは皆さんが立派であるからではないのです.

"원래의 마음으로 원시반본하여 자신이 성불한 부처님으로 화하면 조상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므로,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들도 모두 불국토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없애고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벗어나면 죽은 조상도 모두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승리제단에 나와서 살아있는 미륵불, 정도령, 구세주인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皆さんの身體のなかの先祖がこちらに率いて來たのです. だから先祖代だいの三代が積德を施した一家の子孫でなければ生き彌勒佛に會うことも出來ず, その名前を知り得で唱えることは出來ないと涅槃經, 格菴遺錄に書かれています.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조상님이 '가자~ 가자~' 하여 이리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대대로 삼대(三代) 적덕가(積德家)의 집안의 자손이 아니면 생미륵불을 만나볼 수 없다고 열반경, 격암유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ところが, 佛教では人が死ねば彼が作った業報によって牛になったり, 鳥になったりほかの獸になったりすると教えているがこれは, 誤った言葉なのです.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만든 업보에 의해서 소가 된다든지, 새가 된다든지 다른 짐승이 된다든지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だから子孫が先祖たちの顔つきと性格などに似てい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す. また, 先祖が犯した罪も遺傳されるのです. だから, 自分が犯した罪はきっと罰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いるし, 自分が積んだ德行も必ず報償を受け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當代に受けなければ子孫が必ず受けるのです. 그래서 후손들이 조상들의 생김새와 성격 등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조상이 저지른 죄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자신이 쌓은 덕행도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받지 않으면 자손이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ところが, 子孫の身體の中に先祖の靈がいるので, 子孫が苦しめられれば先祖も一緒に苦し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し, 子孫が立派になって嬉しい時, 先祖の靈も一緒に喜ぶ事になるのです. 그런데 자손들의 몸속에 조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손이 괴로워하면 조상도 함께 괴로워하게 되어 있고, 자손이 훌륭해져 기쁠 때, 조상의 영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死ぬことが卽ち地獄です
죽는 것이 곧 지옥

"この世が大變つらい"と言い, 死ねば樂では無いだろうかという心を抱いて自殺をする人がいます. しかし, 死ねば終わりという考えば勘違いなのです. 自分が死ぬことによって全てが終わることではないのです. 死ぬことが卽ち地獄です. それは死んだ後の苦しみは言葉では表現しがたいほど辛いものです. "이 세상이 매우 괴롭다"고 말하고, 죽으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곧 지옥입니다. 그것은 죽은 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自分の靈が息子の中にいるのに, その息子が自分の望む通り動いてくれないことです. それは言葉に言えないほど息苦しいのです. 言えないほどの苦しみと惱みと心の傷の中にいるものが死んだ人の靈なのです. だから, どんなにしてでも死んではならないのです. 자신의 영혼이 아들 속에 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뇌와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ところで, 子孫の中で誰かが解脫して永生身體に變われば死んだ先祖たちの靈がすべて生き返った事になるのです. 그런데 자손 중에 누군가가 해탈하여 영생의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면 죽은 조상들의 영이 모두 살아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 我われの先祖達はどのようにしてでも代だいを繼ごうと心を碎いたことです. 自分の血が跡絶えることなく子孫代だい續いて行きその子孫が彌勒佛に會って解脫するとき, 自分も共に解脫しようとする念願が下敷きになっていることです.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썼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대대로 이어져 그 자손이 미륵불을 만나 해탈할 때, 자신도 함께 해탈하려고 하는 염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勝利者の説教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54회

궁궁이 영적 아들인 을을을 키우니 을을이 궁궁을을이 되어 정도령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다

弄弓哥(一) 롱궁가

許多衆生(허다중생)만은 四覽(사람) 弄弓哥(농궁가)를 불러보소 句中有意弄弓哥(구중유의농궁가)를 男女老少心覺(남녀노소심각)하소 貴(귀)여웁다 우리아기 壽命福祿祈禱(수명복록기도)하자 ㄹㅡㄹㅡㄹㅡㄹㅡㄹㅡㄹㅡ(불아불아불불)이요 兩弓之弓ㄹㅡㄹㅡㄹㅡ亞(양궁지궁불불아)세 達穹達穹(달궁달궁)이요 三人一夕達穹(삼인일석달궁)일세 唵嘛唵嘛阿父唵嘛(엄마엄마아부엄마) 天下第一(천하제일)우리唵嘛(엄마) 道乳充腸(도유충장)이내몸이 唵嘛(엄마)업시 어이살가 道理道理眞道理(도리도리진도리)요 邪不犯正正道(사불범정정도)라 主仰主仰主仰時(주앙주앙주앙시)에 向天向地向主仰(향천향지향주앙)을

허다 중생 많은 사람 농궁가를 불러보소. 구절 속속 깊은 뜻 농궁가를 남녀노소 부를 때 마음 깊이 깨달으소. 귀여웁다 우리아기 수명복록 기도하자 불아불아불불(ㄹㅡㄹㅡㄹㅡㄹㅡㄹㅡㄹㅡ))이요. 아기를 키울 때 달래는 옛날부터 전해온 말이다.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다.

궁(弓)자 두 자를 배궁(背弓)하면 불(ㄹㅡㄹㅡ)자요 합자한 모양은 아(亞)자다. 불(ㄹㅡㄹㅡ)자와 아(亞)자 속에는 백십자의 모양이 있다. 그러므로 십승지인이 나오면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여 아기의 수명과 복록을 빌면서 불렀던 것이다.

삼인일석(三人一夕)은 수(修)자의 파자이니 몸과 마음가짐을 잘 닦아야 하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궁(穹)은 하늘이며 달궁(達穹)은 하늘의 뜻에 맞게 이룬다는 말이다. 엄마는 영적 엄마(영모靈母)요 아부엄마는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분은 하늘(天父)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부엄마로 표현한 것이다. 천하제일 우리엄마 도의 젖으로 배를 채워야 할 이내 몸이 엄마 없이 어이 살까?

도리도리(道理道理) 참 도리요 삿된 것이 범하지 못하는 바르고 바른 정도(正道)로다. 주님을 고도로 사모하며 바라보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오로지 주님만을 고도로 사모하고 우러러 볼 뿐이니라. 이러한 이치를 아기를 키울 때 부르는 노래에 붙인 것이다. 또 여기서 아기는 세상의 아기를 말하면서 도를 닦는 구세주 후보자(정도령을 배워 구세주가 되어 세상 사람을 살릴 사람들)를 일컫는 깊은 뜻이 들어 있다. 미륵불(구세주=정도령)을 배워 미륵불이 되고자 하는 아기부처에게 하는 깊은 뜻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그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애기부처를 조성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마지막 주인공 대두목(왕 중의 왕=구세주=정도령)은 신도를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기부처를 많이 불러 모아 미륵불이 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천지공사에 붙여 두었던 것이다.

指路指路直界指路(지로지로직계지로) 不赦晝夜指掌指路(불사주야지장지로) 作掌作掌作掌弓(작장작장작장궁) 血脈貫通作掌弓(혈맥관통작장궁)에 殲魔殲魔道路殲魔(섬마섬마도로섬마) 道路道路道路殲魔(도로도로도로섬마) 道飛道飛活道飛(도비도비활도비) 길나라비活活道飛(활활도비) 自長自長遠理自長(자장자장원리자장) 深理奧理遠理自長(심리오리원리자장) 꿈나라 月南宮(월남궁)에 天上榮華暫間(천상영화잠간)보고 先祖先塋相逢(선조선영상봉)하야 萬端情話(만단정화) 못이뤄 靈鷄之聲(영계지성) 놀라 깨니 日竿三(일간삼)이 되엇구나

길을 가리키네. 길을 가리키네. 하늘에 이르는 곧은길을 가리키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손바닥을 가리키고(손바닥을 힘차게 쳐서 혈맥 관통하라는 의미) 길을 가리키네. 직계지로(直界指路)의 뜻은 이재전전(利在田田)의 목운(72궁)과 금운(81궁)이 말씀하신 곧은길을 말하며 계(界)의 형상은 전(田)과 인(人)과 이(二)의 합자이다. 작장궁 하며 손바닥을 치고 또 쳐서 혈맥을 관통시키고 또한 똑바로 서서 걸어가야 하니라.(섬마는 서마西痲로 보아 서도西道로 인하여 홍역을 치른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사람이 날아다니는 도, 살아서 날아다니는 도가, 길나라비 지어 살아서 훨훨 날아다니는 도가 나오느니라. 아기를 재우는 자장가는 원대하고 깊고 오묘한 이치가 들어 있나니 잘 깨닫고 자라도록 해야 하느니라. 아기는 영적으로 자라서 미륵불이 될 사람이다. 꿈나라 월남궁(月南宮)에서 천상의 영화(榮華)를 잠간 보고 선영(先塋)의 조상들과 서로 만나 온갖 정담을 나누던 중 영계(靈鷄) 소리에 놀라 꿈을 깨고 보니 해는 벌서 세 발 장대만큼이나 올라왔구나. 영계(靈鷄)는 때를 알리는 영적인 닭이니 곧 미륵불의 출현을 말하며 일간삼(日竿三)은 진리의 태양이신 삼위일체 구세주 정도령의 출현을 뜻한다.

魂迷精神(혼미정신) 가다듬어 極濟萬民救活(극제만민구활)코저 一燭光明(일촉광명) 손에 들고 塵海業障突破 (진해업장돌파)할제 孝當竭力忠則盡命(효당갈력충즉진명) 우리阿只榮貴(아지영귀)하다. 立春大吉建陽多慶(입춘대길건양다경) 陽來陰退肇乙矢口(양래음퇴조을시구) 天增歲月人增壽(천증세월인증수)는 東方朔(동박삭)의 延壽(연수)이요. 春滿乾坤福滿家(춘만건곤복만가)는 石崇公(석숭공)의 富貴(부귀)로다. 堂上父母千年壽(당상부모천년수)는 先後天地合運時(선후천지합운시)요. 膝下子孫萬世榮(슬하자손만세영)은 永無惡臭末世界(영무악취말세계)라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어 세계만민을 구제하고 구원하여 살리고자 천상의 광명(감로해인 빛의 면류관)을 손에 들고 티끌 같은 고해(苦海)에서 수많은 업장을 돌파할 때 효(孝)와 충(忠)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 힘쓰시니 우리의 정도령 구세주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도다. 아지(阿只)는 마방아지(馬方阿只)이며 정도령 구세주를 말한다. 삼위일체구세주 하나님이 나오시니 크게 길한 일이요. 양도(陽道) 즉 삼위일체 구세주 하나님이 불사영생의 진리를 굳건히 세우시니 온 우주가 다 함께 기뻐하며 경축(慶祝)할 일이로다. 불사영생의 진리 즉 빛의 세상(구세주의 세상)이 오고 사망 즉 어둠(마귀)의 세상이 물러가게 되니 정말 좋구나.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하니 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삭이가 해마다 수명을 더한 것과 같고 온 천지에 봄기운이 충만하고 복은 온 집안에 가득하니 석숭공의 부귀영화가 따로 없도다. 대청마루에 계신 부모님이 오래 오래 장수(長壽)하심은(천수天壽를 넘으면 신선이 된다는 말이 있다.) 선천과 후천의 천지가 합하여 중천운(中天運)이 열리는 때요. 슬하(膝下)의 자손들이 만세의 영화를 누리게 됨은 영원토록 마귀의 악취가 없어지는 말세의 신선세계가 열릴 때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